

### 신의 사랑, 사심 없는 사랑.

오늘 사랑의 대양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다. 자녀들은 모두 다 사랑하지만 그들은 등수대로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화신이 되는 자들이며 항시 사랑의 대양 안에 잠겨있는 이들로, 사랑에 넋을 잃은 자녀들이라고 불린다. 사랑스럽다는 “러블리”와 “러블린” (사랑에 넋을 잃은) 상태와는 차이가 난다.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또 사랑에 잠긴 채 넋을 잃었다는 뜻이다. 사이클을 통틀어서 너희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지고의 사랑, 신의 사랑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신의 사랑은 사심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신의 사랑은 고귀한 이 브라민 생의 기반이다. 신의 사랑은 너희가 여러 생 동안 소리쳐 신을 부른 데 대한 가시적인 결실이다. 신의 사랑은 새로운 생에 대한 기부다. 신의 사랑이 없이는 너희들의 삶이 말린 수수깡처럼 무미건조하다. 신의 사랑은 너희를 아버지 가까이로 데려오는 수단이다. 신의 사랑은 너희가 변함없이 항상 밥다다와 동반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즉 너희가 신을 동반자로 느끼게 만든다. 신의 사랑은 너희를 애쓰는 데서 해방시키고 너희가 요그육트한 단계로 쉽고 끊임없이 스스로 요기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신의 사랑은 너희가 세 “층” (세 세계)을 쉽게 건널 수 있게 해준다.

1) 몸에 대한 의식을 잊는 것. 2) 몸의 모든 관계를 잊는 것. 3) 일시적인 성취를 가져다주는 몸과 물질세계의 매력적인 모든 것에 대한 이끌림이 쉽게 끝나는 것. 최고로 높은 성취에 대한 행운은 너희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신에게 사랑을 가진 너희 자녀들은 모든 것을 버렸느냐, 또는 너희의 행운을 차지했느냐? 너희는 뭘 버렸느냐? 여러 군데 께맨 옷들, 마지막 생의 쇠퇴하고 오래된 몸이 버림이냐? 사실 너희들은 그 몸을 기능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만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낡은 산스카르나 성질의 흔적도 없으며, 몸에 대한 관계가 전혀 없고, 마음은 말썽을 부리지 않고, 비틀대며 헤매는 지각의 습관도 없는, 빛으로 이루어진 천사의 몸을 받는다면, 빛으로 된 그런 천사의 몸을 받고 나서 만일 너희가 낡은 몸을 벗어야 한다면, 그것은 버림이냐? 너희가 받은 것은 무엇이고, 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버림이냐, 행운이냐? 똑같은 방식으로 몸의 이기적인 관계들, 너희에게서 행복과 평화라는 안락함을 가로채 가는, 없어질 친척들, 한 순간에는 형제였다가 바로 다음 순간엔 이기심으로 인해 적이 되어 너희에게 슬픔을 끼치고 너희를 기만하며, 애착의 끈으로 너희를 묶는 자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모두 버리고,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한 분과 모든 관계를 얻는다면, 너희가 실제로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항상 너희에게서 가져가기만 하는 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손에서 놓아버리는데, 왜냐하면 영혼들 모두 끊임없이 가져가고 아무 것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너희에게 공여자로서의 사랑을 주며, 취하려는 어떠한 욕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아무리 정의로운 영혼 (다르마트마),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자비로운 영혼, 또는 은밀한 기부자라 해도 그들은 여전히 가져가고 공여자들은 아니다. 최소한 그들에게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다. 아버지는 가득한 대양이기 때문에 그는 공여자다. 오직 신의 사랑만이 공여자의 사랑이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받는다. 마찬가지로, 없어질 물질의 소유물들을 너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독이 가득한 물건들을 쓴다는 뜻이다. “내 것”이라는 의식에 너희를 가둬놓는 물질의 소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너희는 무엇이 되었느냐? 너희는 새장 안에 갇힌 새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소유물들은 너희를 단지 허섭스레기만 가진 자들로 만들었을 뿐이다. 너희는 그 대신에 너희를 수백만 장자로 만드는 가장 고귀한 소유물들을 받는다. 그러니 수백만을 받은 다음에 지푸라기만큼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버림이냐?

신의 사랑은 너희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 버림은 이미 저절로 일어났다. 그렇게 쉽고 변함없이 버린 자들은 최고로 높은 행운을 가진 자들이다.

때로 무척 많이 사랑하는 일부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의 사랑을 보이며 말하기를, “저는 참으로 많이 버렸습니다!” 라 한다. “제가 그토록 많이 버렸건만 어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밥다다는 웃음 지으며 자녀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얻었느냐?” 목록을 작성해라. 저울의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버림 쪽이냐, 성취 쪽이냐? 오늘이 아니면 내일, 너희는 어쨌든 어쩔 도리 없이 뭔가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 전에 미리 지각 있게 되어서 어떤 것을 버리기 전에 뭔가를 성취한다면, 그것이 버림이냐? 너희가 행운에 대해 말할 때 버림은 빈 조개껍데기만큼 무가치하고, 행운은 다이아몬드만큼 값어치가 나간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을 테지? 아니면 너희가 많이 버렸다고 느끼느냐? 많이 포기했느냐? 너희는 뭔가를 버린 자들이냐, 뭔가를 받은 자들이냐? 만일 너희가 꿈속에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것을 했어!” 또는 “내가 그걸 버렸지!”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는 스스로 행운의 선을 지우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 꿈에라도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신의 사랑은 너희가 자동적으로 버림의 감정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든다. 버림의 감정은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지게 만든다. 신의 사랑은 아버지의 모든 보물에 대한 열쇠인데, 왜냐하면 사랑은 너희들을 권리를 가진 영혼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없어질 사랑과 몸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낙원의 왕국에 대한 행운을 잃게 만든다. 없어질 사랑을 추구한 탓에 자기들의 왕국에 대한 행운을 잃은 왕들이 많다. 그들은 없어질 사랑이 왕국에 대한 행운보다 더 크다고 여겼다. 신의 사랑은 너희가 잃어버린 왕국의 행운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너희를 2중의 왕국에 대한 권리를 지닌 이로 만든다. 너희는 자아주권을 얻고 세계의 왕국도 역시 획득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신의 사랑을 얻는 특별한 영혼들이다. 따라서 사랑을 가진 자들이 아닌, 항상 사랑 안에 잠겨 있으면서 사랑에 넋을 잃은 영혼들이 되어라. 합쳐져 있는 자들은 대등하다. 너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새로운 이들이 왔으니 새로 온 너희가 앞서가려면 단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항상 신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다 가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쉽지 않으나?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앗차.

그렇게 가치 있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진 그런 자녀들에게, 신에게 사랑 받을 권리를 지닌 영혼들에게, 신의 사랑을 통해서 왕국이라는 최고로 높은 행운을 얻는 복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의 대양 안에 변함없이 합쳐져 있으면서 아버지와 대등한 자녀들에게, 모든 성취로 가득한 보물창고인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이제는 때에 따라 힘의 전류를 보내주는 봉사를 시작해라 .**

이제 때는 너희가 어디서나 마음을 통해 분위기를 만드는 힘과 파동의 전류를 보내는 과제를 행해야 할 그러한 때다. 앞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가 올 터이므로 지금은 이런 유형의 봉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천사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단계로 어디든 순회 여행을 다녀야 한다. 너희의 천사 형태를 통해서 남들이 뭘 원하든, 그것이 평화, 행복, 충족감 중 뭐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라. 그들이 천사인 너희를 통해서 평화, 힘, 행복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라. 내면의 단계, 즉 너희들의 최종 단계, 강력한 단계는 너희들의 마지막 탈것이다. 너희들의 이 형태가 너희 앞에 나오게 만들고 힘의 전류를 보내주면서 너희의 천사 형태로 여행을 다녀라. 오직 그제야 샅티들이 왔다는 노래가 불릴 것이다. 그러면 샅티인

너희들을 통해서 전능한 권위자는 자동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육신의 형태를 보았듯이, 그런 물결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그 나약한 영혼들에게 밤낮으로 전류를 보내서 힘으로 그들을 채워주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심지어 밤에도 그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힘의 전류로 영혼들을 채워주는 봉사를 하곤 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모두 특별히 “등대이자 발전소”가 되어서 빛과 힘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힘의 전류를 보내주는 봉사를 하려고 왔다. 이 물질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천사인 너희들은 저 위 높이 머물면서 초연한 관찰자로서 모든 이의 배역을 지켜보며 계속 힘의 전류를 보낸다. 너희 모두 무한한 세계의 유익을 위한 도구들이다. 그러한즉 초연한 관찰자가 되어 전체 게임을 다 지켜보면서 힘과 너희들의 협조의 전류를 보내주는 봉사를 해라. 힘의 전류를 보내주려고 너희 자리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다. 어떠한 유형의 분위기에도 영향 받지 않도록 너희는 고귀한 단계에 안정해 머물면서 주어라.

아버지가 서틀 리전에서 한 장소에 앉아서 온 세상 전체의 자녀들을 부양하듯 너희 자녀들 역시 한곳에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처럼 무한한 봉사를 해야 마땅하다. 아버지를 따라라. 힘의 전류를 무한으로 보내줘라. 무한한 봉사를 하며 너희 스스로를 바쁘게 유지해라, 그러면 저절로 무한한 무관심이 생길 것이다. 너희는 힘의 전류를 보내는 봉사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 너희의 건강, 시간 등의 문제는 이것으로 쉽게 풀린다. 너희는 밤낮으로 무한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너희가 힘의 전류를 무한으로 보내주면 너희에게서 가까운 자들도 역시 자동적으로 그 힘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무한한 힘의 전류를 보내줌으로써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될 것이다.

브라민인 너희들은 원래의 보석들, 특별한 몸통이다. 몸통을 통해서 모든 이가 힘의 전류(사카시)를 받는다. 그러니 약한 자들에게 힘을 보내줘라. 남들에게 협조하려고 노력하며 너희의 시간을 써라. 남들에게 너희가 협조해주는 것은 너희 스스로를 위해 축적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나는 줘야 한다. 나는 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물결을 퍼뜨려라. “나는 그저 주기만 해야 한다. 나는 구원(호의)을 구하려 들지 말고 구원을 줘야 한다.” 받는 것은 주는 것 안에 합쳐져 있다. 만일 너희가 지금 자아의 유익을 위한 높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경우 세계 봉사는 그 힘의 전류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지각을 변화시키는 봉사를 하도록 힘의 전류를 보내줘라. 그러면 너희는 성공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너희 앞에서 머리 숙여 절하는지 볼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말의 힘으로 장애의 장막을 치워버려라, 그러면 너희는 장막 뒤에서 유익의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을 휘젓는 것과 더불어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의 생각을 가지고서, 힘의 전류를 보내주는 훈련을 쌓으며 마음을 침묵시키며 시시때때로 교통정리를 할, 그런 날도 역시 정해둬라. 비록 너희가 하루를 쉴 수는 없을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가를 낼 수 있으니 너희 각자의 직장 형편에 따라 이것을 위한 계획을 정해 놓아라. 홀로 있으면서 너희의 보물들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특별히 짜라. 마음의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나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밥다다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자비심을 느낀다. 슬픔의 파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행복의 공여자의 자녀인 너희는 마음의 힘과 더불어 너희의 태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통해서 봉사함으로써 또 힘의 전류를 보내줌으로써, 모든 곳의 모든 영혼들에게 한 방울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오 신인영혼들아, 오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아, 너희의 신봉자들에게 힘의 전류를 보내주어라!

과학자들은 일체의 모든 슬픔을 끝낼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낼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발명해내는 편의시설들은 행복을 줄 뿐 아니라 슬픔도 초래한다. 그들은 확실히 슬픔은 전혀 없고 단지 행복의 성취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불멸하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 행복, 평화, 이타적인 진정한 사랑을 비축해놓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그들에게 기부해야 한다. 강력한 기억의 파동을 어디에나 퍼뜨리는 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라. 높은 탑은 어디로든 전류를 보낼 수 있고 빛과 힘을 퍼뜨린다. 비슷하게 매일 최소 4시간 동안은 높은 단계에 머물며 “나는 높은 곳에 앉아있으면서 세상에 빛과 힘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라. 밥다다는 자녀들이 지금 빠른 봉사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일어난 일은 뭐든 아주 좋았다. 자 이제는 때에 따라 남들에게 말을 통해서 봉사할 기회를 더 많이 줘라. 이전 남들을 “마이크”로 만들고 너희는 힘이 되어서 모든 이에게 힘의 전류를 보내줘라. 너희들의 힘의 전류와 그들의 말은 곱절로 일을 해낼 것이다.

**질문 :**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최대의 타파샤는 무엇이야?

**대답 :**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위대한 타파샤다. 그런 단계에 안정해 머무는 자들은 위대한 타파스위들이다. 타파샤의 힘은 가장 큰 힘으로 기억된다.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타파샤를 지속하는 자들은 큰 힘을 가진다. 이 타파샤의 힘은 세상을 바꾼다. 하타 요기들은 한쪽 다리로 선 채 타파샤를 한다. 하지만 너희 자녀들은 한쪽 다리로 서지 않고, 한 분에 대한 의식을 지속한다. 너희는 단 한 분에게만 속한다. 그런 타파샤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계 시혜자가 되어라, 즉 위대한 타파스위가 되어라.

**Blessing:** 강력한 생각으로 축적의 계좌를 늘리는 거룩한 백조가 되어라. 백조가 돌을 보석들과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무엇이 낭비이고 무엇이 강력한지 식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조들이다. 백조는 결코 돌을 잡지 않으며 그것들을 분리해서 한쪽에 놔둘 뿐 결코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조인 너희들은 폐기물을 옆에 치워두고 강력한 생각들을 훈습한다. 너희는 오랫동안 쓰레기를 듣고 말하고 행한 결과 모든 것을 그냥 다 잃고 말았다. 하지만 이전 손실을 경험하는 자가 아닌, 축적의 계좌를 늘리는 자들이 되어라.

**Slogan:** 신의 행동수칙이라는 팔찌를 너희 스스로 찬다면 너희들의 굴레는 모두 다 끝날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